**두괄식 !!!**

**\*\*필수 암기 항목 :**

**자기소개 / 지원동기 / 어떤업무 하고 싶은지 / 입사 후 포부 / 마지막 할말**

**자신의 장,단점 / LS ELECTRIC의 장,단점**

**1차) 기술면접 예상질문**

**Q. LS Electric에 대해 아는 것 다 말해보세요. LS Electric에서 뭐 만드는지 아나?**

LS ELECTRIC의 주요 사업은 크게 “**발전사업**” 부문과 “**자동화사업**“ 부문으로 나뉩니다.

1) **발전사업** 부문에서는 [발전소](https://namu.wiki/w/%EB%B0%9C%EC%A0%84%EC%86%8C)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수용가(家)에까지 공급하고 전력계통을 보호하는 전력기기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 부문의 주요 제품은 [저압기기](https://namu.wiki/w/%EC%A0%80%EC%95%95%EA%B8%B0%EA%B8%B0), [고압기기](https://namu.wiki/w/%EA%B3%A0%EC%95%95%EA%B8%B0%EA%B8%B0), [배전반](https://namu.wiki/w/%EB%B0%B0%EC%A0%84%EB%B0%98), [진단 시스템](https://namu.wiki/w/%EC%A7%84%EB%8B%A8%20%EC%8B%9C%EC%8A%A4%ED%85%9C) 등이 있습니다.

2) **자동화사업** 부문에서는 산업용 PLC, 차량용 인버터 등의 자동화기기 제품과 에너지절약기기 등의 자동화시스템을 제조해 공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 IT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 초전도 한류기, 친환경 전력기기, HVDC 등의 그린에너지 사업에도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 꼬리질문 대비**

**Q. “인포그래픽” vs “디지털비쥬얼라이제이션” 의 차이점을 말해보시오.**

디지털비쥬얼라이제이션은 map, graph, chart 등 오직 하나의 시각화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포그래픽은 여러 개의 data visualization을 포함합니다.

또한, 인포그래픽은 storytelling이 있는 반면에, 데이터비쥬얼라이제이션은 storytelling이 없습니다.

**Q.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젝트들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ㅇㅇㅇ

**2차) 임원면접 예상질문 (사장님 or 담당님)**

**Q. 우리 회사는 무조건 야근을 시킨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센스)**

야근은 귀찮고 하기싫은 것이 아닌, 현재 저의 꿈인 Data Scientist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야근을 시켜주신다는것은 저를 그만큼 믿어주고, 그만큼의 일을 더 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할 용어**

* 디지털 매출증대, 전사 비용절감 (North Star)
* DT, CT, PT

**양 늘리기, 말 속도 중간(너무 느리게X)**

**키워드 중심 암기, 말 길어지면 외우기 힘듦**

**꼬리질문 대비하기**

**\*\*필수 암기 항목 (2차 면접)\*\***

**Q. 1분 동안 자기소개를 해보시오. (회사 말고 내 중심으로 쓰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 넓은 세상에서 DT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어 Data Scientist직무에 지원하게 된 박영민 입니다.“

저는 컴퓨터사이언스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데이터 분석, DT 플랫폼 제작에 많은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업계에는 유능한 프로그래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저를 차별화시킬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DT 기술과 GA를 연동하여 실제 LS ELectric의 여러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낭비되고 있는지 분석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나아가, 실제 여러 외부업체들과의 미팅을 진행하며 LS Electric의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현황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DT 플랫폼 제작 경험이 있으며, 실제 DT임원평가 App을 제작해 상용화 시켜본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저는 LS Electric의 데이터분석 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되어, 성과를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Q. 지원동기는 무엇인가? (두괄식)**

“저는 DT추진단에서의 인턴경험을 토대로, DT전문가가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COVID-19 사태 이후 새로운 변화의 첫걸음엔 항상, 제가 일했었던 DT추진단이 있었습니다. 비록 인턴 신분이었지만, 여러 외부 업체들과의 미팅에 참석하며, 현장에서 “어떻게 DT가 이뤄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게 바꿀 수 있을것인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제안했습니다.

LS Electric은 하루빨리 많은 B2B e-commerce 시장에 진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현재 오프라인 판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일 해외 국가들을 타게팅 한 후, 여러 DT Tool들을 활용해 데이터들을 RealTime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해외시장 점유율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Q. 어떤업무를 하고 싶은가? (두괄식)**

“저는 DT추진단에서 전사 데이터 분석과 여러 DT Tool들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학부생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코딩실력을 향상 시켜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은 실제 DT추진단에서 인턴생활을 할 때, 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턴때에는 회사보안상의 이유로 진행하지 못했었던 머신러닝,딥러닝 등의 AI기법을 활용한 프로젝트 역시 정규직이 된다면,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회사내의 모든 데이터를 Digital로 수집할 수 있는 틀을 먼저 구축할 것입니다.

그 후, 이를 토대로 더욱 많은 DT프로젝트들을 함께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Q. 입사 후 포부 (두괄식)**

“희망부서인 DT추진단에서 일하며, LS전직원이 DT의 주도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것입니다.”

DT란, 단순 Digital Technology와 같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시장가치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매출증대, 비용절감 이라는 LS Electric의 NorthStar하에**, DT추진단에서 함께 일하며 DT와 CT, 그리고 나아가 PT. 즉, People Transformation을 목표로 LS 전 직원이 DT에 주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성할 것 입니다.

**Q. 자신의 장/단점? (두괄식)**

“저의 장점은 어떠한 과제를 받더라도 끈기있게 해내는 능력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았던 과제를 받았을 때에는, 항상 처음 시작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며 스스로 해결법을 도출해냈습니다. 그 결과, 언제나 정해진 시간안에 과제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의 단점으로는, 한 가지에 몰입하면, 다른 것은 잊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친한 친구의 생일을 잊는다는 등의 일입니다. 이런 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성인이 되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Q. 우리 회사의 장/단점? (두괄식)**

“제가 인턴생활을 하며 느낀, 저희 회사의 장점은 ‘자유로운 분위기’ 였습니다.”

팀원들은 언제나 저의 의견을 경청해주며 존경해주었습니다. 또한 넘치는 열정과 에너지로 많은 의견을 주고 받으며,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LS Electric의 상호존중 문화는 개발자로서 저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에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의 단점으로는 20세기의 마인드로 21세기 툴을 대하려는 문화가 아직 정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DT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닥의 경우 디지털카메라로 전환 하려하지 않고 필름카메라를 고수하다가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LS Electric 역시 가장 먼저, LS사원 모두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 할말**

먼저,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LS Electric에 합격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토대로 DT추진단 팀원들과 협업하며, 최고의 DT 전문가가 되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강조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항상 생각하고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보고 경험했습니다

저는 대학교2학년때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하였습니다. 파이썬 게임제작을 시작으로 공공 데이터분석, 웹 프로그래밍, 자율주행, AI, 이미지 프로세싱 등 다방면에 걸쳐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DT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지털 매출확대, 전사비용 절감 이라는 LS Electric의 NorthStar하에, DT추진단에서 인턴업무를 하며, 현장의 여러 업무들을 도맡아 진행해왔습니다.

전사 데이터 분석, DT플랫폼 제작 등 Data Scientist로서 회사의 실정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매일같이 팀원들과 토론하고, 기획했습니다.

전사업무 Digital 전환의 최전방에 있는 DT추진단의 일원으로서, LS ELECTRIC의 DT비전을 함께 달성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LS ELECTRIC의 DT현황을 먼저 파악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 후,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여러 DT Tool들을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무작정 외부의 기술등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DT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ROI를 설정하고, 명확한 KPI 하에서 업무를 진행할 것입니다.

.